

서울 초등생, 10년 만에 순유입... “강동·강남에 쏠린 것”

전국 6280개 초등학교 전출입 분석
서울 초등학생 순유입 834명 집계
교육특구·재건축 아파트 입주 영향

경기도, 1339명 빠져 10년 새 최대
충청권, 3년 연속 순유입 흐름 ‘뚜렷’

최근 10년 사이 처음으로 서울 초등학생이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순유입이 발생한 곳은 6개로, 교육 여건이 우수하거나 대규모 주택 입주가 이뤄진 지역이다.

19일 종로학원이 지난 5월 공시된 전국 6280개 초등학교의 전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서울 초등학생 순유입(전입자수-전출자수) 인원은 83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초등학생이 순유입을 기록한 것은 최근 10년 사이 처음이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순유입이 발생한 지역은 강동구와 강남구, 양천구, 서초구, 노원구, 송파구 등 6곳뿐이었다.

강동구의 순유입 인원이 1752명으로 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원촌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학생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뉴스시스

장 많았고 강남구 1331명, 양천구 848명, 서초구 795명, 노원구 193명, 송파구 163명 순이었다. 나머지 19개 구에서는 모두 4248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순유입 전환이 서울 전역의 학령인구 회복이라기보다는 강남·서초·양천 등 기존 교육특구와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이어진 강동구 등 일부 지역에

학생이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경기도에서는 초등학생 1339명이 순유출돼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순유출 규모를 기록했다.

전국 순유입 상위 지역에는 강남·서초·양천·대구 수성구 등 전통적인 교육 선호 지역과 서울 강동구, 인천 서구, 경기 광명·평택 등 대규모 주택 개발 및 아파트

입주 지역이 함께 포함됐다.

지방 권역 가운데서는 충청권의 순유입 흐름이 가장 뚜렷했다. 충청권은 2023년 229명, 2024년 703명, 2025년 400명으로 3년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대구·경북권도 지난해 32명이 순유입돼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순유출에서 벗어났다.

제주와 강원, 호남권은 순유출이 이어졌지만 규모는 최근 3년간 감소했다.

부산·울산·경남권은 2023년 978명, 2024년 269명, 2025년 566명이 순유출됐다.

종로학원은 초등학생 이동이 주택 개발과 입주 물량뿐 아니라 향후 중·고교 진학을 염두에 둔 교육 목적 이동과도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충청권에서 3년 연속 순유입이 발생하고 대구·경북이 순유입으로 돌아선 시점이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지방권 중·고교 출신 학생의 의약학계열 진학 기회가 부각된 시기와 맞물린다는 설명이다. 신도시 개발과 신규 주택 입주, 지역별 학령인구 변화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 선발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지방 중·고교 출신 학생의 의대 지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지방권 초등학생 이동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 “서울이 최근 10년 사이 처음으로 초등학생 순유입으로 전환했지만 실제로는 25개 구 중 6개 구에만 순유입이 집중돼 서울 전체의 학령인구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교육특구와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 지역으로 초등학생이 몰리는 현상이 서울과 지방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권의 3년 연속 순유입과 대구·경북의 순유입 전환이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시기와 맞물리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지역의사제 도입 이후 지방 중·고교 진학을 염두에 둔 학생 이동에 변화가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광화문광장서 여름 물놀이 즐기세요”

대형 수영장, 바닥분수, 공연 등
오늘부터 내달 9일까지 운영
무료 탈의실, 건조시설도 설치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로공원 일대에 대형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 모래 놀이터가 설치된다. 입장료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바닥분수와 탈의실, 건조시설 등도 함께 운영된다.

서울시는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2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1일간 ‘2026 서울썸머비치’와 ‘광화문광장 여름 상상놀이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썸머비치는 매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광화문광장과 세종로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행사장은 워터웨이브존과 플레이웨이브존, 플레이마켓존 등 3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워터웨이브존에는 대형 수영장과 높이 8m의 워터슬라이드, 워터버킷 등이 설치된다. 플레이웨이브존에는 지름 12m 규모의 돔 형태 모래 놀이터인 ‘샌드 아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바닥분수에서 한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트’가 처음 마련된다. 플레이마켓존에서는 푸드트럭을 운영한다.

광화문광장 명량분수와 한글분수, 터널분수 등 바닥분수 3곳도 가동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비가 오거나 강풍이 불면 운영을 중단한다.

한글분수 인근 광장숲과 열린마당에는 무료 탈의실과 건조시설, 파고라 형태의 쉼터가 설치된다. 편의시설은 2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문화공연도 열린다.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마술과 노래, 악기 연주 등의 공연이 진행된다. 하루 2~3개 팀이 참여하며 관람료는 없다.

감사의 정원 앞에서는 시민 참여 행사도 진행된다. 2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9개 미션 가운데 3개 이상을 완료한 참가자에게 경품을 주는 ‘미션 빙고 이벤트’가 열린다.

오는 25~26일과 다음 달 1~2일에는 감사의 정원에서 사진을 촬영한 뒤 ‘감사합니다’를 외쳐 기준 음량을 넘으면 경품을 주는 ‘테시벨 챌린지’가 진행된다.

개장식은 20일 오후 1시50분 열린다. 서울시는 개장식 뒤 물놀이 시설과 수영장 수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 고교생, 中·日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학생 80명, 4개 권역서 20명씩 참여

서울 고등학생 80명이 중국과 일본에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는다. 학생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 활동지를 둘러보고 탐방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참여위원회 고등학생 위원을 대상으로 ‘2026 학생자치 연계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참가 학생은 모두 80명으로, 4개 권역에서 20명씩 참여한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소속 학생들은 19일 중국 충칭과 시안으로 출발한다. 북부교육지원청은 20일 일본 도쿄, 중부교육지원청은 27일 중국 하얼빈과 연길을 방문한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생들도 27일 중국 상하이와 난징으로 떠난다.

학생들은 인종근·윤봉길·이봉창·의사의

활동지를 비롯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 관련 사적지를 방문한다. 현장 해설을 듣고 사전에 정한 탐구 주제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사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교육과 현장 탐방, 사후활동으로 구성됐다. 각 교육지원청은 출국에 앞서 독립운동사 강의와 탐구 주제 선정 활동을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지난 18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도 방문했다.

탐방을 마친 뒤에는 권역별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다른 학생들과 공유한다. 탐방 기간에는 교육장과의 간담회도 열어 역사교육과 관련한 학생 의견을 듣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독립운동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학생자치 활동을 통해 역사교육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경과원, AI 스타트업 PoC·투자연계 지원

오는 31일까지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도내 AI 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2026년 AI 클러스터 오픈이노베이션 연계·실증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AI 스타트업과 국내 대·중견기업을 연결해 공동 기술 개발과

기술검증(PoC), 투자연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본사·지사·연구소·공장을 둔 설립 7년 이내 AI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다. 신산업창업 분야 기업은 설립 10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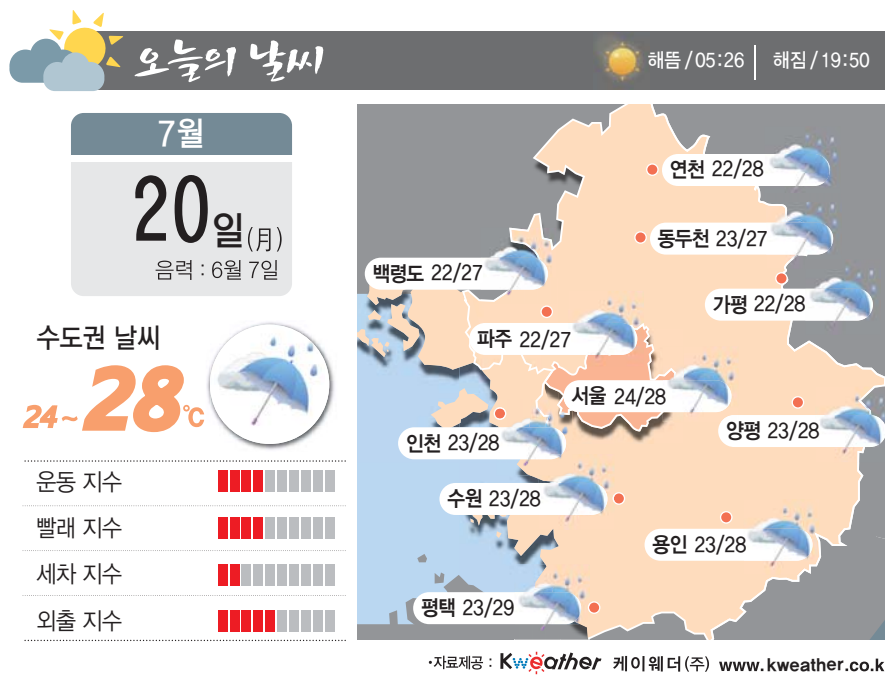
경과원은 AI 스타트업 20개사 내외를 선발해 기업진단, 전문가 맞춤형 멘토링,

IR 데모데이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한다. 이후 대·중견기업과 매칭해 최종 선정된 5개 사에는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PoC 실증 자금을 지원한다.

LIGA큐버, CJ ENM 등 5개 대·중견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며, 선정 기업에는 맞춤형 액셀러레이팅과 투자연계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1일 오후 2시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트럼프 “미군 희생 매우 슬퍼...이란 MOU 중단 개의치 않아”
▲美중부사령부 “이란 추가 공습 종료...해안·미사일 시설 타격”
/사진 뉴스시스

▲“이란, 美 봉쇄 해제 한달 만에 9조원 원유 수출...중국행 유력”
▲중국 문샷, 개방형 AI 키미 K3 출시...“일부 성능 美 AI 앞서”

▲日방위상 “핵 정책도 금기 없이 논의해야”...비핵 3원칙 논쟁 재점화
▲베네수 임시대통령 “IMF서 지진 긴급지원금 5100억 확보”